

# 조선전기의 수의서(獸醫書)와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에 관한 연구 II

★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한국고서연구회 회장  
★★ 대한수의사의 수의역사특별위원장

★ 김 영 진  
★★ 김 병 성

## 3-5 제4차 복간본과 몽고소의 도입

제4차 복간본은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끼(三木榮)21)는 최명길의 우역방후발(牛疫方後跋)을 인용, 인조14년(1636)8월의 해주관 이외에 동년9월에 중앙에서 인출한 교서관(校書館) 활자본이 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조14년(1636)여름, 평안도와 황해도에 우역이 불길타듯 번져 가을에 이르러도 오히려 그치지 않고 경기도에 번져 호서에 미치니 조정이 근심하게 되었다. 공조참판 윤의립이 선대부터 소장하던 내사본 「언해마우치료방」책을 내놓았다. 그 책은 1541년 왕명으로 편찬한 것을 1578년 우역이 다시 발생, 재간(再刊)하여 배부한 것이었다. 사복시 제조 이서(李曙)가 보고 크게 기뻐하여 나에게 그 까닭을 들려주었다. 상(임금)께서 즉시 교서관에 보내어 인출하여 중외에 배포

하라 하시었다. 대개 조선조 백여년간에 우역이 무릇 세번 발생하였는데 우리 열성조나 전하께서 백성들을 근심하고 농업을 염려하는 뜻이 전후에 한결 같았다. 또한 임진년의 병화로 서적이 산실되어 100중 1~2개만 남았는데 유독 이 책이 타다 남은 재에 온전히 남아 쓰일때를 기다렸으니 아아! 이 또한 기이한 일이다. 신(臣) 최명길 교서관 제조(提調)를 겸하여 인출의 실역을 맡아 간략히 그 일의 개략을 책 끝에 기록하여 참고토록 한다." 1936년 9월17일.... 완성군 최명길 씀.

牛疫方後跋 今上十四年丙子夏 平安黃海兩道 牛疫大熾 至秋猶不止 延入京畿 以及 湖西 朝廷患之 工曹參判尹毅立 出其先人所藏內賜諺解 馬牛治療方 一冊 乃嘉靖二十年 奉教撰者 萬曆 六年 又因牛疫再刊以頒者也 司僕寺 提調李曙 見大喜 具由以聞 上即付校書館 印布中外 蓋國 朝百餘年間 牛疫三發 而我列聖 我殿下憂民軫

農之意 前後一揆 且壬辰兵火 書籍散失 百無一二存者 獨此 書樓 全於灰燼之餘 待時以效其用 噫亦異哉 <臣>鳴吉時 檢校書堤 調 實主其劑 厥之役 略敘 其事於卷尾 以識之云 崇禎九年九月十七日 完成君崔鳴吉書

상기 내용으로 보와 3차복간의 해주판본은 우역이 평안, 황해도를 거쳐 경기도 등지에 전염될 무렵 인출되었는데 4차복간의 이 교서관본은 그보다 한달후인 9월에 복간한 것이다. 발문의 내용으로 보아 인출시기는 충청지방에 전염될 무렵이었던 것 같으며 병원균은 역시 우역이었다. 한달 가격으로 동일내용의 수의서가 중복되어 복간된 것은 중앙과 지방간에 의사소통이 안되었거나 의사소통은 되었어도 3차복간본의 인간부수가 모자란 데에 원인할 것이다. 여하간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유일한 방역대책은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의 복간이었다.

방역과 직접관련은 없어도 많은 소의 폐사로 농경에 어려움을 겪자 이의 대책으로 몽고소를 도입한 기록이 있다. 병자호란 다음다음해인 인조16년(1638)6월의 실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sup>22)</sup> "비국(비변사)의 낭청(5품직) 성익이 소를 무역하는 일로 몽고에 들어갔다. 심양에서 서북쪽으로 16일을 가서 오환왕국에 도달하였고 또, 동북쪽으로 4일간 가서 도달한 곳이 삭도왕국이었다. 다시 북쪽으로 가서 3일만에 몽호달왕국에 도달했

고 또 동쪽으로 가서 투사토왕국, 소토을 왕국, 민토왕국에 도달하였다. (그곳에서 소 181두를"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평안도 열읍에 나누어주어 농사짓는데 잘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庚子備局郎廳成 鈞 以買牛事入蒙古 自瀋陽西北行十六日 到烏桓國 三日到乃蠻王國 又東北行四日到者 朔道王國 又北行三日到蒙胡達王國 又東北到 投謝土王國 所土乙王國 賓土王國 買牛一百八十一 頭而還 命分給平安道列邑 以資耕農

참으로 어려운 소수입이었고 소부족에서 오는 어려운 대책이었다. 이와같은 몽고소의 도입이 얼마나 빈번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현종4년(1663) 8월13일의 실록을 보면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이르기를 "국가가 성익으로 하여금 몽고땅에서 사왔는데 현재의 소들은 모두 그 후손들이다. 命相 鄭太和曰 國家成 買來於古地 今之牛畜 皆其貴種矣"하였다. 우리나라 소의 내력을 살피는데 참고할 만한 기록이다.

### 3-6 제5차 복간과 증보(增補)

미끼(三木榮)<sup>22)</sup>에 의하면 제5차 복간은 인조22년(1644)에 인출되었다 한다. 그내용은 기존의 우역방(牛疫方)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의 약칭)에 효과적인 새로운 처방 2~3개를 보태어 수백부를 인출, 각 고을에 보냈다고 발문(跋文)을 쓴 이식(李植 1584~1647)의 글을 근거로 하고있다. 이식의 호는 택당(澤堂)으로 문과에 급제,

요직을 거쳐 1643년에 원손보양관(元孫保養官) 대사헌, 형조, 이조, 예조판서를 거친 문신이다. 초간본이 나온지 103년만에 비로소 증보판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제5차 증보 복간본을 발행하게 된 배경을 살펴 고자 인조 21년(1643)부터 동22년(1644)까지 실록을 살펴보았으나 가축이 전염병으로 폐사하였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또 이식의 문집인택당집(澤堂集)에도 그가 썼다는 발문이없다. 이는 초간본이나 계속된 복간본을 인간배포할 때와 문헌상 그 배경이 다르다. 그러나 비록 복간의 배경이 되는 실록상 기록은 없어도 과거의 기록으로 보아 가축의 전염병이 만연할 때 사람도 전염병에 걸려 많이 사망하였다거나 사람의 전염병이 발생할 때 가축의 전염병도 뒤따라 병발한 예가 허다하여 이것을 복간의 근거로 한다면 실록상 그럴만한 근거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인조21년(1643) 정월(무오)에 승정원에서 아뢴 말 가운데「기근과 염병이 서로 거듭하여 飢饉癘疫相仍」라든가 동3월(갑인)에 비국(備局)에서 여쭙기를 「기근과 염병으로 인민이 거의 다 죽어 飢饉癘疫 人民死亡殆盡」라는 기록, 동3월(경신) 비국에서 여쭙기를 「기근과 염병으로 사망이 계속되어 이목이 미치는 곳마다 놀랍고 참담하지 않은 곳이 없어 飢饉癘疫 死亡相繼 耳目所及 莫不驚慘」라는 기록, 동4월(을사)에 임금이 「한 해를 거친 염병 經歲癘疫」이라고 한 말, 동11월(신축)에

「서울에 큰 역병으로 죽은자가 심히 많다 京師大疫 死者甚多」라든가 동12월(을유)에「전라도에 염병이 크게 번져 죽은자가 만여명 全羅道癘 疫大熾 死亡者萬餘人」이라는 기록들이다.

또 인조22년(1644)의 예를 들면 정월(신축)에 「강원감사 한전일이 지급보고하기를.....항차 도내에 염병이 크게 치열하여 열집 중 아홉집이 앓고 죽은자는 미처 장사를 지내지도 못하니..... 江原監司 韓典一馳啓.....沉道內 癘 疫大熾 十室九痛 死者未葬.....」

이라든가 3월(임진)에 「예조판서 이경중에게 명하사 북교 여단에 나아가 여제를 거행하라 命禮曹判書李景重 行癘祭于北郊 癘壇」하였다든가 5월(임진)에 도승지 등이 여쭙기를 「.....염병이 매년 계속되어 온나라에 퍼져 인민이 사망하기 열집에 아홉집이 비었으니..... 疫連年 遍滿國中 人民死亡 十中九空」등의 기록에 비추어 복간할 수 있는 정황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가축의 대량 폐사에 대한 직접적 기록이 없을 뿐이다.

#### 4.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의 체제와 그 특징

4-1) 제2차 복간본과 제3차 복간본간의 구성비교

이 책의 체제와 그 특징에 대한 검토는

초간본과 내용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제2차 복간본(일본 궁내청 서능부 소장)과 제3차 복간본(해주목판본으로 서울대 도서관 소장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자료의 한정 때문이다. 초간본과 2차 복간본의 내용이 같을 것으로 추측하는 근거는 초간 당시의 서문과 본문이 제2차 복간본에 그대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다만, 앞에서 밝힌 바 초간본의 표재(標題)에는 마(馬)자가 없다는 차이뿐이다.

제2차 복간본과 제3차 복간본을 비교하면 제2차 복간본에는 서문5쪽, 여백1쪽 본문 30쪽 등 모두 36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3차 복간본에는 서문이 없이 본문 30쪽만으로 되어있으며 그나마 21쪽과 22쪽은 낙장(落張)되어 있다. 두 복간본이 모두 발문(跋文)은 없다. 2차 복간본의 서문은 초간본 편찬 당시 좌승지였던 권응창(權應昌)이 쓴 것으로 그 내용은 평안도 관찰사 상진(尙震)이 가축의 전염병으로 도내 가축이 많이 폐사하여 치료법을 물은 내용과 이에대한 응신내용, 그리고 치료법을 한문체문장으로 하달하더라도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치료법을 베껴쓸 때 잘못 옮겨 씌므로서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리(藥理)나 문자(文字)에 해박한 의원(人醫)들을 가리어 이두와 한글(諺文)로 풀이하고 약 이름은 이해하기 쉽도록 시골에서 쓰는 향명(鄉名)을 병기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이 책의 편찬은 「신편집성마의방」의 편찬과 같이 병조소속의 마의(馬醫)가 아닌 예

조소속의 인의(人醫)들에 의해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기는 앞에서 밝힌 바 경기도 광주의 의원(醫員)들의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믿어진다.

모두 19부를 인쇄, 10부는 예조와 예조소속의 전생서(典牲書 제사용 가축을 맡아 기르던 종6품관이 우두머리인 관청), 사축서(司畜署 연회용 잡축을 맡아 기르던 종6품관이 우두머리인 관청), 그리고 서울을 다섯 구획으로 나눈 5부(五部), 예조소속의 전의감(典醫監 의약을 담당한 정3품관이 우두머리인 관청),惠民서(惠民署 서민의 의약과 치료를 담당한 종6품관이 우두머리인 관청)등에 각각 1부씩 도합 10부를 나누어주고 나머지 9부는 개성부(開城府 종2품관이 우두머리로 경기도 관찰사가 겸임)와 8도에 한부씩 급속히 나누어주는 바 각도는 이를 본받아 즉시 더 많이 인쇄(刻板多印)하여 각 고을에 보낼 것이며 추후 가축질병의 치료를 어떻게 하였는지 점검하겠다는 요지이다.

끝에는 가정(嘉靖)20년(1541) 11월 25일 좌승지 권응창이 임금의 윤허에 의거하여 썼다고 되어있다. 이 서문으로 보아 2차 복간본은 초간본의 서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이것이 초간본과 2차 복간본의 내용이 같을 것이라는 근거이다.

두 복간본의 끝에는 「우마양저염역병치로방」종(終)이라 써있고 제3차 복간본의 끝에는 승정(崇禎)9년(1636) 병자8월 일 해주목개간(海州牧開刊)이라 써 있다. 제2차 복간본이나 제3차 복간본의 한쪽당 행수

(行數)는 9행, 행당 자수(字數)는 17자(字)로 모두 같고 동일 지면상의 글자까지도 그 위치가 같다. 글자는 모두 해자체(楷字體)이나 3차 복간본의 글자의 굵기가 약간 굵은감이 있다.

다만 두 복간본간에 차이가 있다면 문법이나 용어상의 사소한 변화이다. 예컨대 2차복간본의 「브스 면」을 3차 복간본에서 「브오면」으로 △음이 ◦음으로 표기되었다거나 「면염 傳染」을 「면음」, 입(口)을 뜻하는 「미배」를 「이배」, 축사를 뜻하는 「오희양」을 「오양」으로 표기한 차이뿐이다. 이는 2차 복간후 3차 복간까지 62년간의 어음발전의 성과이거나 방언을 바로잡은 것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간본안에서도 어떤 곳은 소(牛)를 「스」라 하였다가 어떤 곳은 「쇼」라 표기하였는데 그때마다 3차 복간본도 그대로 따라 옮기고 있다.

#### 4-2 두 복간본간의 본문내용 비교

두 복간본의 본문내용은 똑같다. 즉 서두에 책의 제목, 이어서 모두풀이형식의 전염병에 대한 용어풀이가 있고 이어서 본문의 순서로 풀이되고 있다. 그 내용은 먼저 본초(本草)에서 15개 조항(條項), 우마의방(牛馬醫方)에서 2개 조항, 신은(神隱)에서 4개 조항, 사림광기(事林廣記)에서 1개 조항, 편민도찬(便民圖纂)에서 3개 조항, 산거사요(山居四要)에서 1개 조항, 그리고 끝에는 「사림광기」와 「편민도찬」에서 각각 1개 조항씩을 다시 추가하여

모두 28개 조항이 초록되고 있다. 매 조항은 질병치료법으로 의학상의 처방이다.

「사림광기」와 「편민도찬」에서 초록할때 한번에 초록하지 않고 끝에 초록원본을 이중으로 기록한 것은 허둥지둥 판각하다가 완성 단계에서 한개 조항씩을 추가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그 내용을 세밀히 검토한 바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 까닭은 초록의 순서를 소, 말, 물소, 양, 돼지의 순으로 하였기 때문에 소의 처방을 초록한 다음 양이나 돼지의 처방을 초록하며 동일문헌을 재인용한 것이다.

예컨대 서두의 「본초」에서 15개 조항, 「우마의방」에서 2개 조항, 「신은」에서 4개 조항, 「사림광기」에서 1개 조항 「편민도찬」에서 3개 조항 등 전체의 90%정도인 26개 조항은 대가축인 소, 말, 물소의 질병과 치료법 순으로 기록하고 있다. 곧 대가축 위주로 편찬된 것이다.

질병순으로는 우마역(牛馬疫), 우역(牛疫), 우마백병(牛馬百病), 우상열(牛傷熱), 우마온독(牛馬溫毒), 우마육축역병(牛馬六畜疫病), 우분혈(牛糞血)등의 병징에 따른 약물치료법을 먼저 기록하고 이어서 우마의 「우마역」을 뜸질(灸)로 치료하는 법, 이어서 소의 장역(牛瘡疫), 물소의 온역(水牛瘟疫), 소의 졸역(卒疫)등 25개항이 그것이다. 이어서 「산거산요」에서 초록한 양의 사양관리인 방목요령 1개항, 「사림광기」에서 돼지장병(瘡病)의 약물치료법 1개항과 「편민도찬」에서 돼지의 저병(猪病)치료법으로 꼬리를 잘라 방혈

하여 치료하는 법 등 10%정도인 3개항만이 증가축인 양과 돼지의 질병을 수록하고 있다.

곧 가축별로는 소, 말, 물소, 양, 돼지의 순이며 대가축의 병은 공통된 병을 먼저 쓰고 한 축종에 관한 것은 뒤에 썼다. 치료법의 순으로는 약물, 뜸질, 예방, 수술 치료의 순으로 풀이되어 서둘러 편찬한 가운데에도 매우 체계적으로 풀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초록원본들은 모두가 중국의 수의서들이며 그 중 「우마의방」만이 기존의 우리 수의서다. 「우마의방」은 1399년 조준(趙浚) 등이 편찬하고 전의소감(典醫少監), 방사양(房士良)이 서문을 쓴 「신편집성마의방부·우의방」의 약칭으로 그중 온역문(溫疫門)의 첫째 처방과 끝절의 뜸질법(灸法)을 원문 그대로 초록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농서에서 전체의 93%정도인 26개 조항을 초록하였으니 이 책은 서두에서 밝힌 중국농서의 초록본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 같다. 의문인 것은 앞에 초록된 가축의 여러 질병이 오늘날의 어떤 질병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처방만 있지 처방의 원인인 증상이 없기 때문이며 이는 이 수의서가 지니는 취약점이다.

이를 국내 수의술의 발전면에서 본다면 초간본이 인간된 1541년에서 4차복간본이 나온 1636년까지의 95년동안 국내 수의술은 전혀 발전이 안된 채 가축의 전염병이 크게 변질때마다 유일한 국가적 방역대책이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의 기계적 복간

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초간본이나 복간본에 내용의 질적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 4-3)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의 서지(書誌)학적 고찰

우리나라의 수의서를 포함한 전체농서의 서술(편찬)형식은 대략 6개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농사직설(農事直說)이나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와 같이 ①한문체(漢文体) 풀이 일변도이거나 조선조 초기의 「양잠경험찰요」나 「농서집요」와 같이 ②한문체 초록본문에 문장마다 이두(吏讀)풀이가 곁들여진 것이 있다. 또 조선조 중기의 마경초집언해(馬經抄集諺解)나 구황찰요언해(救荒撮要諺解)와 같이 ③한문체풀이의 본문에 문장마다 언문체(諺文体)풀이가 곁들여진 것도 있다.

조선조 말기에는 1886년 이희규의 「잠상집요」와 같이 ④순 언문체풀이로 된 것도 있고 1886년 정병하(鄭秉夏)가 엮은 농정찰요(農政撮要)와 같이 ⑤언한문(諺漢文) 혼용체풀이도 있다. 이중에는 개화기 일어(日語)식 서구 농학을 초록한 언한문체 초록본이 포함된다. 이에 더하여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은 앞의 ②와 ③형식이 복합된 독특한 편찬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⑥의 형식이라 하자. 이 ⑥의 형식은 네가지 방식이 복합되어 있다.

그 첫째는 오로지 이두체 문장으로 된 부분이다. 이는 권웅창의 본서 서문에 나타

나고 있다. 그 둘째는 한문체 본문 다음에 문장마다 한글체 풀이가 곁들여진 것이다. 이를 원문 그대로 예들들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漢文體本文 + 언문체 풀이]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쇼며말이며양이며도티며서 ㄹ뎨염 ㅎ난병 고티난방문이라.

그 세번째는 다음과 같이 매 한자(漢字)마다 한글의 음(音)을 달고 이를 다시 언문체문장으로 풀이한 것으로 이는 17세기의 마경초집언해(馬經抄集諺解)의 풀이 형식과 유사하다.

[漢字+漢字的 언문을 + 언문체 풀이]

染疫疫역病병은 ㅎ나알고둘세알파서 ㄹ뎨염 ㅎ난병이라.

그 넷째는 한문체 본문을 먼저 쓰고 한자 내려서 이두문으로 본문의 내용을 반복하여 풀이하고 또다시 언문체로 반복 풀이하였는데 이두체 문장에는 오해하기 쉬운 명사에 곳에 따라 이두와 한글풀이를 이중으로 주(註)를 달고 있다. 가장 간단한 문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漢文體本文+吏讀體풀이 + 언문체 풀이]

(本文) 又方水煮千金木與葉待冷灌口

(吏讀) 又方千金木(火乙羅毛 나모) 果菓果

乙以水煎煮待冷牛口良中灌灌注爲乎事

(諺文) 또 ㅎ난방문네 ㄹ나모와 ㄹ립과 ㄹ를 ㄹ레 ㄹ글 ㄹ허 ㄹ추 거 ㄹ든 이베브으라

이와같이 네가지 문체가 복합되어 한 책을 이루고 동일내용을 세번 반복하여 풀이한 것은 우리 농업고전중 이「우마양저염역병 치료방」이 처음이다. 다시 말하면 단일언어 민족으로 문자로는 한자(漢字)와 언문(諺文)의 두가지를 사용하면서 문장으로는 한문체, 이두체, 언문체, 한(漢)이(吏)언(諺)복합체, 언한문혼용체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체를 가진 나라도 드물 것이며 (?) 우리나라 여러 분야의 고전 중에서는 유독 농학분야의 농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그와같이 복잡한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넓은 의미로 말하면 우리 문자인 한글이 한(漢)자 보다 뒤늦게 창제되었다는 점, 우리의 문화나 농업과학이 선진 이웃나라에 뒤떨어져 문화종속국이었다는 점, 따라서 이를 수입 보급하는데 다양한 지식 계층이 다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체나 복합문체 사용이 불가피하였다는 점들을 들 수 있다. 곧 한(漢)문체만 아는 계층, 이두체만 아는 계층, 언문체만 아는 계층들을 모두 충족시키고자 구차하게 고안된 편찬방식이 동일내용을 세번 되풀이하여 풀이하는 복합문체가 된 것이다.

곧, 너구를 표시할때 "獺" 라 써야 이해하

는 계층, 이두식 "汝古里" 라 써야 이해 하는 계층, 언문체인 "너고 라 써야 이해 하는 계층이 서로 달랐다는 뜻이다.

좁은의미로 보면 지방마다 방언을 쓰고 한글의 띄어쓰기나 문법이 통일되지 않아 같은 뜻으로 쓴 명사라도 오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심지어 소(牛)를 뜻할때도 같은 간본내에서 조차 어떤 곳은 "쇼" 라 하고 어떤 곳은 "쇠" 라 하여 혼란이 있으며 물소(水牛)의 경우는 "므쇠" 라 하였으니 자칫 무쇠(水鐵)로 오해하기 쉽게 되어있다. 그러나 수천수만의 가축이 폐사함으로써 국가경제가 마비되는 화급한 상황에서는 복잡하나마 이와같은 복합문체라도 있어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만도 다행한 일이었다. 이는 지도층이 난관을 극복코자 하는 자기고민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이 책의 초간이나 복간본의 복합문체는 당시의 우리 문화수준이나 우리 농업과학수준의 시대적 반영이며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부록 (1578판)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전문 (全文)의 현대어풀이**

- 소, 말, 양, 돼지에 서로 전염하는 병을 치료하는 처방.
- 염역병(染疫病)은 하나 알코 둘 셋이 아파 서로 전염하는 병.

**본초(本草)**

- 소나 말에 서로 전염되는 병을 치료하되 너구리 고기나 너구리똥을 물에 끓여 식혔다가 그 즙(汁)을 병든 소와 말의 입에 흘려 넣어라.
- 소가 서로 전염하는 병을 치료하되 여우의 창자를 태운재를 물에 풀어 소의 입에 흘려 넣어라.
- 소가 서로 전염하는 병을 치료하되 너구리똥 두되 를 더운물에 담가 그 즙을 소의 입에 흘려 넣어라.
- 소가 서로 전염하는 병을 치료하되 여우머리와 꼬리를 불에 태워 물에 풀어 먹이라.
- 또한가지 처방에 너구리고기와 간과 창자를 물에 끓여 그 즙을 입에 흘려 넣되 너구리똥은 쓰지말라.
- 또한가지 처방에 소가 병을 앓기 시작할때 부추즙을 내어 두되 또는 서되를 입에 흘려 넣되 병이 시작되지 않았어도 흘려 넣어도 좋다.
- 또한가지 처방에 병든 소가 아직 기운이 있거든 북나무(千金木)를 베어다가 외양간 벽에 돌려 세워두라.
- 또한가지 처방에 북나무와 잎을 물에 끓여 식혀 차거든 입에 흘려 넣어라
- 또한가지 처방에 북나무 잎을 잘게 썰어 풀에 섞어 먹이라.
- 소와 말의 온갖병을 치료하되 버들잎과 우유에 섞어 갈아서 탄자모양의 환을 지어 말려두었다가 사용할때 이를 다시 갈아 우유에 타서(혼합)입에 흘려 넣으면 신기한 효과가 있다.
- 소의 상열(傷熱)을 치료하되 참깨잎을 물에 끓여 입에 흘려 넣어라.
- 또 소와 말의 전염병을 치료하되 검은콩을 물에 삶아 입에 흘려 넣어라
- 또 소와 말과 양과 돼지 그리고 개가 서로 전염하는 병을 치료하되 술에 사향(麝香)을 약간 풀어 입에 흘려 넣어라.
- 또한가지 처방에 붉은 흙을 소의 뿔에 바르면 모든



병기운이 침입하지 못한다.

- 소똥에 피가 묻어나올때 슬가마 아래 황토 2돈중에 술 한되를 섞어 끓여 차거든 입에 흘려 넣는다.

### 우마의방(牛馬醫方)

- 소와 말이 서로 전염하는 병을 치료하되 삼주의 뿌리(白朮), 박새(藜蘆), 궁궁이(芎藭), 세심(細辛), 두아머조자기(鬼臼), 창포(菖蒲)등을 같은 분량으로 섞어 곱게 가루내어 불에태워 그 연기가 코를 통해 배에 들어가면 즉시 나아진다.
- 뜸질하는법, 소와 말이 처음 발병할때 몸에 조금 부운 곳이 있거든 자세히 살펴보아 쇠침을 불에 달구워 지지라. 또 찬물에 담가세워 몸이 차게하라. 또 썩을 새끼손가락 크기만 하게하여 배꼽을 30번가량 뜨라.

### 신은(神隱)

- 소의 전염병(瘡疫)을 치료하되 석창포(石菖蒲), 대나무잎(淡竹葉), 칩뿌리가루(葛粉), 심황(鬱金), 녹두, 쯤(蒼朮)등을 같은 분량으로 가루로 만들어 섞어 매양 쓸때마다 한양(一兩)을 파초즙(汁) 서되에 넣고 꿀한양, 황납(黃蠟) 두돈을 잘 섞어 입에 흘려 넣으라. 차도가 없거든 다시하고 열이 가장 오르거든 대황(大黃)을 더 넣고 코끝에 땀이 없거든 다시 마황을 더 넣는다. 코와 입에 피가 나거든 포황(蒲黃)을 더 넣으라.
- 또한 처방에 소외양간 안에 안식향(安息香)과 두해목은 창출(蒼朮)을 불에 피워 그 연기를 코에 들어가게 하면 효과가 있다.
- 또한 처방에 셋달에 토끼머리를 불에태운 재(灰)를 물에 풀어 닳되를 입에 흘려 넣으라.
- 또한 처방에 좋은 작설차(雀舌茶) 두냥(二兩)을 갈아 물에타서 닳되를 입에 흘려 넣으라.

### 사림광기(事林廣己)

- 인삼을 잘게 썰어 물에달여 닳되를 입에 흘려 넣으면 즉시 좋아진다.

### 편민도찬(便民圖纂)

- 소가 서로 전염하는 우장(牛瘡)병을 치료하매 석남동(石楠藤)과 파초(芭蕉)를 섞어 갈아 즙(汁)을 내어 닳되를 소입에 흘려 넣으라.
- 물소가 서로 전염하는 온역(溫疫)을 치료하매 인산, 작약 뿌리, 황백(黃柏)피 각두돈반, 패모(貝母), 지모(知母), 백번(白礬), 황연(黃連), 방풍(防風) 각 두량 삼돈, 산치자(山梔子), 울금(鬱金), 속썩은풀(黃芩) 각 두냥삼돈, 하나다리뿌리(牻牛苗), 도라지 각 두냥, 대황(大黃) 한냥아홉돈 등을 한곳에 모아 가루로 만들어 이 가루 두량식을 쓰되 꿀두냥과 사탕 한냥, 생강한돈을 물두되에 풀어 입에 흘려 넣으라.
- 소가 문득 서로 전염하는 졸역(卒疫)으로 제머리로 제 몸염을 치거든 파루(把豆) 7개를 껍질을 벗기고 갈아 참기름과 섞어 소입에 넣고 다시 주엽(芻葉) 한 슷을 코에 붙여넣고 다시 짐신바닥으로 꼬리 붙을 뼈아래를 치라.

### 산거산요(山居山腰)

- 양(羊)의 외양간은 높게 만들어 매일 청소하고 사시(巳時 오전9~11시)에 방목하고 미시(未時 오후1~3)에 다시 외양간에 들여보낸다. 이슬맞은 풀을 먹지 않도록 하라. 이슬맞은 풀을 먹으면 병이 생긴다.

### 사림광기(事林廣記)

- 돼지가 서로 전염하는 병을 치료하매 순무나 그 잎을 먹이라. 이것은 돼지가 즐겨먹는다. 그 성질이 서늘하여 돼지의 열을 내리며 또 능히 창자속을 흰출

하게 유통시킨다. 그러나 돼지가 먹지 못하면 치료하기 어렵다.

**편민도찬(便民圖纂)**

- 돼지의 병을 치료하며 꼬리끝을 잘라 피가 나게 하면 효과가 있다.

우마양거임역병기록방 중(終)

**【 인용문헌 】**

1) 王毓瑚 1964 「中國農學書錄」(범예) 北京 農業出版社  
 2) 李蘭映 1968 「韓國金石文追補」林景和墓誌銘 中央大出版部  
 3) 鄭 招 1429 「農事直說」서문 (1981년 아시아 문화사영인 農書 1p ~5)  
 4) 상 동  
 5) 최상준 1996 「조선기술발전사 4」 평양·과학백과종 함출판사  
 6) 尹炳泰 1999 朝鮮의 馬醫書 「馬事博物館誌」p26

7) 天野元之助 1975 「中國古農書考」p65. 東京·龍溪書舍  
 8) 經國大典 1485 兵典의 試取條  
 9) 成宗實錄 卷289~2 成宗25년(1494) 4월 경신. 영인본 12책 p501  
 10) 王毓瑚 同上 p38  
 11) 成宗實錄 卷101 成宗10년 2월 신해  
 12) 金榮鎭 2000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 p55~56  
 13) 李盛雨 1981 「韓國食經大典」p244  
 14) 金信根 1988 「韓國科學技術使資料大系」解題 驪江出版社  
 15) 尹炳泰 1999 상동 p21  
 16) 三木榮 1959 「朝鮮醫書誌」 p298 日本大阪 油印本  
 17) 中宗實錄 卷94 中宗36年(1541) 1, 2, 3, 9, 10, 11, 12월 영인본18책 p437~540  
 18) 三木榮 同上 p301  
 19) 宣祖實錄 卷11 宣祖10年(1577) 1, 2, 3, 5, 12월 영인본21책 p344~658  
 20) 仁祖實錄 卷33 仁祖14年(1636) 8, 9, 11월 영인본34책 p642~658  
 21) 三木榮 同上 p299~300  
 22) 仁祖實錄 卷36 仁祖16年(1638) 6월9일(경자)  
 23) 三木榮 同上 p298

전세계 임상 수의사의 선택!  
**조레틸 (Zoletil®)**

**virbac**

조레틸은 Virbac사에서 개발된 최신 동물용마취·진정제로서 Phencyclidine 계열의 Tiletamine diazepam계의 Zolazepam의 합제로서 Tiletamine의 빠른 마취유도효과 및 무통효과와 Zolazepam의 근육이완 및 진경, 진통효과, 항홍분효과를 동시에 발현시켜 주면서 안전성이 뛰어난 마취, 진정제입니다.

<용법·용량>

조레틸50 사용시	개			고양이	
	보정·검진	소수술	대수술	보정·검진	수술시
근육주사	0.15ml	0.2 ml	0.3 ml	0.2 ml	0.3 ml
정맥주사	0.1 ml	0.15ml	0.2 ml	0.1 ml	0.15ml